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94)

2022. 9.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환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94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박환희 의원 외 46명
- 나. 발의일자 : 2022년 8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및 조형물 설치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건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4조제1항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나. 시장의 참전유공자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 노력을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시행령」,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2. 9. 7.~ 2022. 9. 11.(의견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비 및 조형물건립 및 관리를 위한 근거마련 및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계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동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 등을 명시하여 그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¹⁾에 따라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참전기념탑 및 참전 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²⁾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

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16. 6. 21.]

2)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규정된 참전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에 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제3항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것을 신설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 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훈단체 등과의 협력체계가 긴밀할 필요성이 있어 동 조항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³⁾에 의거 매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3.28>

② 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8.10.4>

③ 수당 지급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 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개정 2014.1.9, 2020.7.1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서울지방보훈청장(남부·북부 보훈지청장 포함) 및 자치구청장과 협조하여 확인하고 결정한다.<신설 2014.1.9>

⑤ 그 밖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있으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4)에 의거하여 시비 보조금으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 보훈단체 현황 》

(2021. 12월 기준 / 단위 : 명)

| 연번 | 단 체 명 | 회 원 수 | 연번 | 단 체 명 | 회 원 수 |
|----|----------------|---------|----|----------------------|--------|
| | 11개 단 체 | 117,489 | 6 |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 7,777 |
| 1 | 광복회 서울시지부 | 2,090 | 7 |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 589 |
| 2 |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 17,728 | 8 |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 12,825 |
| 3 |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지부 | 12,680 | 9 | 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 | 36,352 |
| 4 |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 10,744 | 10 | 4.19혁명공로자회 서울시지부 | 328 |
| 5 | 무공수훈자회 서울시지부 | 16,238 | 11 |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 138 |

3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참전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이윤진 입법조사관 (02-2180-8140)

4) 제6조(단체 예산지원)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붙임〉 참전유공자 기념비 현황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관리자 | 시설내용 |
|--------------------------------|--|-------------------------|---|
| 강남구 6·25 참전유공자기념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개포동) 정문 앞 155-4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년 12월에 건립한 이 기념비는, 앞면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문구와 함께 건립취지와 6·25전쟁 연혁, 사진 등을 각인해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했고, 뒷면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구민 2,193명의 이름이 명각되어 건립되었다. 개포동 수도전 기공업고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해 있고, 2021년 6월 18일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
| 구로구 참전유공자 기념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구로구거리공원 내 | 구로구청 | 구로구 출신의 4,321명의 6.25, 월남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지역주민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
| 대광동문 순국 기념비 및 참전 대광학생의 탑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53-3 대광고등학교내 | 대 광 고등학교 | 대광고 동문은 1997년 10월 대광동문순국 기념비 및 한국전쟁참전 대광학생의 탑을 건립하여 대광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서 자유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 및 순국한 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후배 동문들로 하여금 그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발전의 인재로서 커나갈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 미 공병부대 참전기념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96(이촌동) 이촌한강공원 주차장 근처, 노들견우카페 다리 밑 | 한 민 천 선 군민협의회 | 1950년 6월 25일 수도 서울이 북괴군의 전면적인 기습공격으로 점령당하자 우리군은 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6월 28일 부덕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였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과 함께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였으나 중공군의 침공으로 또 다시 수도를 점령당하였다. 이 진퇴를 거듭하던 긴박했던 시기에 미공병부대들은 한강에 부교와 도보교를 설치하여 군사작전을 도왔고 특히 1.4후퇴 시에는 수백만명의 피난민이 이 다리를 건너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었다. 공산군이 한반도 이남에서 완전히 쫓겨난 1951년 6월, 미 공병부대들은 한강인도교의 철교를 복구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 크게 공헌하였다. 이에 한국전쟁 중 보여준 미 공병부대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이를 기리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운다 |
| 미 육사 출신 장교 6.25참전 추모비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산230-30 | 육 군사 관 학교 | 1950년도 미 육사(웨스트포인트) 졸업 후 임관한 365명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쟁 중에 1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41명이 전사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 1996년 10월 2일 6.25참전 동기생들이 추모비를 헌정하였다. |
| 반공청년운동순국 열사기념비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01(남산동2가), 남산돈까스 건너편 | (사) 대한 민 국 통일 건국회 | 반공청년운동 기념비 건립위원회는 1968년 10월 9일 중구 예장동 산5-6에 반공청년운동을 전개하다 순국한 애국열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호국정신을 길이 계승하고자 이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
| 배재중·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27, | 배 재 고 등 | 6·25전쟁에 참전한 배재고등학교 선배들 395 |

| | | | |
|------------------------------------|--|-------------------------|--|
| 6·25참전유공자 명비 | 배재고등학교 | 학교 | 명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재고 후배들에게 일깨우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자 명비를 건립하였다. |
| 서울학도포병참전 자명비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 (용산고등학교 내) | 용산 고등학교 | 6.25전쟁 당시 용산고에서 출정식 (1950.10.20.)을 하고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학도포병 341명의 애국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건립함 |
| 서울공고 6.25참전유공자 명비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내 | 서울공업 고등학교 |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도병과 국군으로 임대해 1950년 6월 27일 새벽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고 북파의 남침을 막아냈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학생신분이었음에도 전쟁에 참전하신 서울공업고등학교 출신의 ?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보훈정신을 계승하고자 건립하였다. |
| 수도전기공업고등 학교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410,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내 | 수도전기 고등 학교 |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치신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후학들에게 보훈정신을 계승하고자 건립하였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중심이 돼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살신성인과 군인 정신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명비를 건립하였다. |
|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터 표지석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나래중앙공원 내 | 6.25참전 유공자회 금천구지회 | 시흥지구사령부 표지석 터는 6.25전쟁 초기 한강방어선전투를 지휘했던 시흥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김홍일 소장)가 있었던 곳이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 전차가 창경원, 동대문, 돈암동 등지로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은 육군본부가 시흥보병학교(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창설했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창동, 미아리 전투를 치르며 분산되어 한강을 건너온 병력을 수용해 혼성 수도사단, 혼성 제2사단, 혼성 제3사단, 혼성 제7사단, 김포지구전투사령부 등 예하사단을 편성했다. 각각의 사단은 연대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지형물인 한강을 이용하여 오늘날 양화교에서 광진교에 이르는 24km 구역 및 김포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했으며, 특히 여의도 비행장, 영등포, 노량진, 신사동 등에 이르는 한강이남지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북한군 제3,4사단, 제1사단(예비), 제105전차여단 등의 남진을 저지했다. 그 결과, 국군은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고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
| 양천구 참전유공자 호국영웅 명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893 장수공원 내 | 양천구 | 양천구 장수공원 내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며 후세에 그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명비 건립 |
| 양정중·고등학교 6·25전쟁 참전유공자 명비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36(양정고등학교 내) | 양정 고등학교 | 6·25전쟁 당시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참전한 선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배들에게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

| | | | |
|-------------------------|---------------------------------------|--------------|--|
| | | |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자 함 |
|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 서울대학교 병원 |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수도 서울의 최후방어선인 미아리고개를 돌파하고 창경궁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거의 1천여명에 달하는 부상 장병들이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은 물론, 병원 복도까지 가득 차 있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은 남소위가 지휘하는 국군 1개 경비소대 병력과 육군본부 병참장교 조용일 소령의 지원하에 있었다. 이후 전세가 악화되어 북한군의 서울 함락이 목전에 있었으나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들은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으며 피난도 잇은 채 오직 환자 치료에만 전념하였다. 6.28일 새벽, 국군 경비소대가 병원 주위를 철통같이 방어하며 완강히 저항하자 북한 괴뢰군은 1개 대대병력을 투입하였고, 국군 경비소대는 이곳 뒷산에서 결사항전 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조용일 소령과 소대장 남소위가 전사하고 소대원 전원도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고 병원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이름 모를 자유전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3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이 비를 건립하였다. |
|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전쟁 참전 기념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4동 210 우신고등학교 교정 | 서울우신초등학교 | 6.25전쟁 당시 이탈리아는 UN의 비회원국이었지만 국제적십자사연맹의 구조 도움 호소로 1951년 10월 16일 의무장교 6명, 행정관 2명, 약제사 1명, 군목 1명, 간호사 6명, 하사관 6명, 사병 45명 등 67명을 우리나라에 파견(참전 연인원 189명), 서울우신초등학교에 의무부대를 주둔시켰다. 이탈리아 의무부대는 1955년 1월 3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23만명을 치료하였으며, 1952년 9월 17일 영등포 열차 사고 때에는 신속한 치료 활동으로 대통령 부대 표창까지 받았다. 1989년 6월 2일 주한 이탈리아 대사 Graziella Simbolotti가 이탈리아 의무부대의 6.25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주둔지였던 서울우신초등학교 교사(서관) 벽면에 기념표석을 설치하였으나, 1999년 7월말 동 건물이 철거되자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1999년 8월 구령대 열 화단으로 이전, 2013년 5월 현 위치로 재이전 설치하였다. |
| 학도의용군 현충비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41-2 효사정공원 내 | 대한민국의 학도의용군회 | 6.25참전 학도의용군 포항 전투 전사자 48명을 추모하기 위하여 1955년도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의 성금모금과 당시 3사단장 김석원 장군의 도움으로 건립 |
| 한강방어 백골부대 전적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2번 출구 근처 | 사단법인 백골전우회 |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자 서울 삼각지에 주둔해 있던 제18보병연대(백골연대)는 6월 28일, 적이 서울까지 침공해오자 7일 동안 영등포를 방어하여 이후 미 지상군 투입 및 아군이 지연전을 펼치는 데 크게 |

| | | | |
|----------------------|---|----------------------|---|
| | | | <p>게 기여하였다.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 분진한 백골연대 장병들의 투혼을 기리기 위하여 전적비를 건립하였다.</p> |
| <p>해병대 104고지 전적비</p> | <p>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100-1</p> | <p>해병대 사령부 군사연구소</p> | <p>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서울 서쪽 관문인 104고지 탈환 작전 중 전사한 해병대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해병대 사령부에서 1982년 9월 28일 이 비를 세웠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해병은 서울 탈환을 목적으로 계속 진격하던 중 1950년 9월 21일 서울의 서쪽 관문인 104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04고지 점령은 서울시민 구출의 선도를 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해병은 결사적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완강히 저항했고 3주간의 끝없는 혈전으로 1개 중대 중 26명만 생존하는 처절한 혈전 끝에 고지를 탈환했다. 적은 104고지 일대를 요새화하여 난공불락의 호언하며 서울 사수의 최후방어선으로 확보중에 있었으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한 한미해병대는 공격을 계속했다. 해병 제1대대가 104고지를 조기에 탈취 역사적인 수도탈환작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상승해병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쳤다. 서울 서측방을 점령 방어하던 적은 북한군 제25여단 및 독립 제7연대 소속 약 4,000명 규모였으며 장교 및 준사관은 대부분 중공군에서 복무했던 정예화된 전투 경험자들이었다. 1950년 9월 21일 해병 제1대대를 중앙에, 미 해병 제5연대 제1대대를 좌측에, 미 제3대대를 우측으로 하여 서울 서측방을 병진공격했다. 국군 해병 제1대대는 제3중대를 주공으로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여 치열한 백병전 끝에 18:30분에 104고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9월 22일 새벽 약 600명 규모의 적은 120밀리 박격포와 각종 공용화기의 지원하에 3시간 동안 2차에 걸쳐 단말마적인 역습을 감행해왔으나 우리 해병대는 필사적으로 이를 격퇴하였다.</p> |
| <p>호국충혼 위령비</p> | <p>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13길 56-33</p> | <p>강서구 청공원녹지과</p> | <p>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무력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육군 제1사단 11, 12, 15연대 소속 장병 1,100여 명은 김포지구로 후퇴하여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화산에 최후의 방어진을 치고 아군으로 위장한 적의 대병력을 맞아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부와 통신이 두절되고 탄약과 보급이 끊긴 채 북한군의 수와 화력에 밀려 부대원 전원이 개화산 골짜기에서 장렬히 산화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94년 개화산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매년 6월 28일 이 곳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p> |
| <p>6.25전쟁참전기념비</p> | <p>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08 ~1533 1526-1 서울고등학교내</p> | <p>서울고등학교</p> | <p>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010년 10월에 6·25전쟁 때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학도병으로 참전한 서울고 동문들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후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p> |

| | | | |
|------------------|-----------------------|------------|---|
| | | | 고자 서울고등학교 교정에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참전 기념비는 5개의 오석으로 된 비석이 배치되어 있고, 서울고 마크를 새긴 원형의 화강암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후면의 주 비석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새겼고, 주 비석 좌우에 한 쌍씩 서 있는 4개의 비석에는 서울고 동문 참전자 453명의 이름을 기수별로 새겨 넣었다 |
| 6·25 순진 16지사 위령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94-3 | 동대문구 재향군인회 | 답십리제당보존회는 1988년 9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삼지공원에 6·25전쟁 당시 순국한 대한결사단 답십리분대 소속 16지사의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며 호국정신을 후세에 전파하기 위하여 16지사위령비를 건립하였다. 당시 동대문구 답십리에 거주하였던 곽명선, 박영인 등 16인은 대한결사단 답십리분대의 결사대원으로 지원하여 조국을 지키는데 운명을 바쳤다. 1987년 답십리 주민 및 유족을 중심으로 16지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비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건립기금을 마련하였다. |

※출처: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정보서비스